

중국 관광업계 동향(26년 4월 1차)

□ 중국 정부 정책

- 중국공산당 중앙대만관공실, 본토대만 양안 교류협력 촉진 10대 정책조치 발표
 - (중앙대만관공실)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 촉진을 위해 <양안 교류 강화 10대 조치>를 발표(4.12)하였으며, 문화관광 관련 주요 내용은 △건전하고 정교하게 제작된 대만 드라마, 다큐멘터리, 애니메이션이 본토에서 방영되도록 허용 △상하이시 및 푸젠성 주민의 대만 본섬 개별관광 시범사업 회복 추진
- 중국 철도부, 반려동물 단독 위탁 운송 서비스 정식 도입
 - (중국철도 공식 계정) 2026년 4월 8일부터 기존 반려동물 보호자 동반 조건을 완화하여 반려동물 단독 위탁 운송 서비스를 시범 도입
 - 시행 이후 누적 15,00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한 것으로 집계

□ 통계 분석 및 예측

- 2026년 청명절 연휴(4.4~4.6) 출입국 인원 677.9만 명 및 국내관광객 1.35억명
 - (중국국가이민관리국) 2026년 청명절 연휴(4.4~4.6) 기간 출입국 인원은 총 677.9만 명, 일 평균 226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.1% 증가. 일자별 출입국 최고 기록은 4월 6일 233.4만 명. 총 인원 중 홍콩·마카오·대만 주민은 329.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.5% 증가. 외국인 출입국자는 84.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.9% 증가. 입국 외국인 중 무비자 정책을 적용받아 입국한 인원은 31.9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.7% 증가.
 - (중국문화여유부) 문화여유부 데이터센터 추산에 따르면, 연휴기간 전국 국내 관광객 수는 1.35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8% 증가. 국내 관광 총 지출액은 613.6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.6% 증가.

- 2026년 1분기 통계 : 출입국자 1.85억 명, 여권 520.1만 권 발급
 - (중국국가이민관리국) 2026년 1분기 중국의 출입국자는 총 1.85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.5% 증가. 그 중 △중국 본토 거주자 9,166.2만 명(전년 대비 14.2%↑) △홍콩·마카오·대만 거주자 7,249.1만 명(전년 대비 10.3%↑) △외국인 2,133.3만 명(전년 대비 22.3%↑) △2026년 1분기 일반 여권 520.1만 권 발급.
 -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831.5만 명으로 전체 입국 외국인의 77.9%를 차지했으며, 전년 동기 대비 29.3% 증가

- 항공 전문 OTA, 2026년 노동절 연휴기간(5.1~5.5) 관련 동향 발표
 - (항튀중형) 2026년 노동절 연휴기간(5.1~5.5) 국내 항공권 예매량은 194만 장 초과, 전년 동기 대비 약 8% 증가. 국제 항공권 예매량은 75만 장을 초과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

□ 경쟁국/지역 · 기타 동향

- (태국) 2026년 1분기 중국인 태국 방문객 149만 명
 - (태국관광청) 2026년 1분기(1.1~3.31) 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총 93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5% 감소
 - 주요 5대 방태 시장은 △중국(149만 명) △말레이시아(96만 명) △러시아(72.6만 명) △인도(62.6만 명) △한국(41.2만 명) 순으로 집계
- (호주) 중국, 호주 MICE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상
 - (호주관광청) 중국은 호주의 핵심 MICE 시장 중 하나로, 방문객 수 기준 2위, 소비 총액 기준 1위를 기록
 - 2025년 12월 기준 최근 1년간 중국 시장 MICE 방문객은 총 96,496명, 소비 규모는 6.12억 호주달러로 2019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. 이 중 중국 본토 방문객은 78,119명, 소비액은 5억 호주달러 기록